



내가 없으면 소도 못 살아요

곤충이 없다면 죽은 동물과 더러운 똥이 숲과 마을, 냇물을 뒤덮을 거예요.
 이와 같은 지구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청소해 주는 게 바로 곤충입니다.
 개미, 송장벌레 등 많은 곤충들이 그런 썩은 물질들을 먹어 감쪽같이 분해하고
 흙의 영양분으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곤충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더러워서 살기 힘들 거예요.
 애기뿔소똥구리가 소들에게는 그런 고마운 존재랍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싼 똥에는 소똥구리와
 많은 똥똥덩이들이 날아듭니다. 똥을 먹기도 하고 똥을 굴려 그 속에 알을 낳기 위해서지요.
 만일 소똥구리가 없다면 소가 싼 똥은 풀 위에 펴고 떨어져 풀을 뒤덮겠지요?
 소똥에 깔린 풀은 광합성을 못해 말라죽게 되고 푸른 풀밭 여기저기 풀이 죽어 가다가
 결국 풀 한 포기 없는 맨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소를 방목하지 않으니 소똥구리도 없어지겠지만, 방목한다 해도 소똥구리가 없으면
 소도 살지 못해요. 방목하는 소와 소똥구리는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지요.
 애기뿔소똥구리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것은 정말 '세상엔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는
 경고 메시지 같습니다.



잠 못 드는 가을밤엔 **빨간 대추**

대추는 뇌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당질 함량이 높다. 이 에너지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공급해 신경을 완화시켜 준다. 대추의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 C 역시 신경의 흥분 작용을 억제하고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대추를 먹으면 신경이 안정되고 불면증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대추는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해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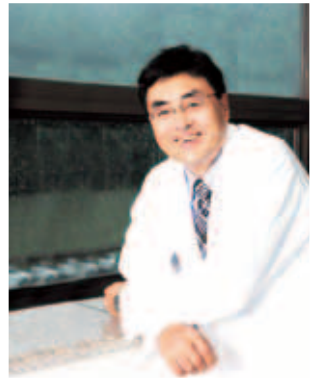
tip.. 대추를 고를 때는 알이 굵고 주름이 골고루 퍼져있으며 탄력이 좋은지 살펴봐야 한다. 색은 얼룩이 없고 적갈색이 선명하고 고우며, 주름 사이에 먼지가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른 대추는 서늘하고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한다.

엘릭시르(elixir) : 不老不死의 만병통치약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SPECIAL THEME

가장 화려한 만남의 결정체, 영화예술

- 06 | Special Theme I _ 문학과 영화의 그 은밀한 속삭임
- 10 | Special Theme II _ 영화와 음악은 하나다
- 14 | Special Theme III _ 그림을 보러 영화관에 가다
- 18 | 이 시대의 명의 _ 단국대학교병원 장무환 병원장
- 21 | 전통문화 지킴이 _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인 박찬수 씨
- 24 | 세계 예술 기행 _ <다빈치 코드>를 통해 또 다시 뜨거운 사랑에 빠진 르부르 미술관
- 30 | 자연을 담은 집 _ 무한의 우주와 달아 있는 집, 첨성재(瞻星齋)
- 34 | 미술 이야기 _ 로트렉, 소외자의 영혼을 꿰뚫다
- 38 | 명사의 책 읽기 _ 불멸의 아티스트 17명의 초상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
- 40 | 헬스 & 라이프 _ 노화를 막는 '생활의 발견'
- 42 | Power of SCD _ 물류팀
- 44 | 의학 클리닉 _ 수술 없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보툴리눔 독소
- 47 | Samchundang News



Cover Story
 톨루즈 로트렉(1864~1901)은 시골벽적인 몽마르트의 유흥과 활기 속에서 가슴 한 편이 서늘한 고독을 안고 작품에 몰두했다. 그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소외된 자들의 영혼을 화폭에 가감 없이 담아냈다.

<세탁부> 1889, 유화, 93x75cm, 개인 소장



가장 화려한 만남의 결정체, 영화예술

영화는 다른 예술 장르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관객에게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전해준다.
영화 이야기의 시작인 문학, 시각적 요소의 공극을 메우는 음악, 그리고 아예 스크린이 화폭이 되는 미술과의 만남까지
예술과 예술이 만나 화려한 꽃을 피우는 영화예술을 만나본다.

Special Theme I :: 문학과 영화의 그 은밀한 속삭임

Special Theme II :: 영화와 음악은 하나다

Special Theme III :: 그림을 보러 영화관에 가다

문학과 영화의 그 은밀한 속삭임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에서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초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로 정의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문학 작품을 2시간으로 압축한 영화를 통해 쉽게 만난다. 영화의 가장 검증된 재료가 되는 문학. 이 둘은 어떤 은밀한 거래를 하며 영화 역사를 차근차근 써내려 왔을까.

글_ **하재봉** 시인, 소설가,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삶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삶을 저 깊은 밑바탕에서 지탱시켜 주는 사상적 이론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산업혁명과 함께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류의 삶을 사상적으로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19세기에 등장한 것이 마르크시즘이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치열한 싸움터였다. 그러나 이제 이데올로기는 종언을 고하고 인류는 새로운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니엘 벨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이야기 하던 시절, 마살 맥루한은 활자문화의 종말을 선언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사람인 백남준은 '모든 종이는 죽었다. 화장실 휴지만 제외하고' 라고 익살스럽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비데가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이전 이야기다. 이제는 화장실에 가도 점점 종이를 찾아보기 힘들어 지고 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디지털 세대다.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이며, 영상이다. 정보화 사회는 곧 영상 정보화 사회다. 영상문화의 흡인력은 너무 막강해서 다른 문화의 수용자들을 방향전환하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듯이 시인이나 작가, 화가, 음악가들은 영화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시나리오를 쓰거나 혹은 세트를 만들고 영화 음악을 작곡한다.

특히 활자문화 수용자들의 상당수는 영상문화로 개종하고 있다. 이제 밤을 새워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나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는 사람보다는 그것들이 영화화된 비디오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원작소설의 후광인가 영화의 후광인가

영화 발생 초창기에도 원작소설의 영화화는 진행되었다.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부족과 명작 소설, 혹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훨씬 잘 포장되어 전달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고전 명작이 갖고 있는 광휘로움은 갈수록 영향력이 급증되고 있는 영상문화에 투영되면서 상호 보완 작용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의 고전들, 수없이 영화화된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햄릿> <맥베드> 등을 비롯해서 현대의 고전들인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의 작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밤을 새울 필요도 없이 2시간 이내면 충분히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은 영상의 하위개념인가. 기초 텍스트에 불과한 것인가.

세계 유수의 고전들과 베스트 셀러 작품들은 영화로 만들어져 스크린을 통해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실 새 없이 영화화되었다. 국내에서도 가장 최근에 영화화 되어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을 비롯해서, 황순원의 <독짓는 늪은이>나 김동리의 <무녀도>, 오영수의 <갯마을>,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 등이 영화화되었다. 현재로 올수록 고전 명작보다는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영화화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1960년대 문예영화 시대에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수상하게 되면 외화 수입쿼터가 배당되었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돈벌이가 보장되는 외화 수입권을 따내기 위해 명작들의 영화화를 선호했다. 한국 현대소설 초창기의 명작들은 주로 그 당시 영화화되었다. 소설의 상업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70년대 청년문화 이후에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중들의 관심을 모은 베스트셀러들

의 영화화가 시도되었다.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나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조해일의 <겨울여자> 등 주로 호스테스 문학이라고 불리던 소설들, 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도시 번두리로 흘러들어와 신음하던, 소외받은 여성들이 주인공인 소설들이 영화화되었다. TV의 대량 보급과 함께 드라마에 주도권을 빼앗긴 80년대는 영화산업의 침체기다.

강석경의 <숲 속의 방>,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이상 오병철 감독),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장길수 감독) 등이 90년대 초반에 영화화 되었지만 상업적으로는 모두 실패했다. 베스트셀러의 후광이 더 이상 영화관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반면에 당대의 신세대 작가로 부상한 장정일의 대부분의 소설들은 영화화되어



원작소설의 영화화는 문학과 영상의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영화의 근본인 내러티브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미 소설로 대중들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심한 영화산업의 특성상 원작소설의

영화화는 제작자들을 안심시켜 주기 때문이다.

관객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아담이 눈뜰 때〉(김호선 감독)를 비롯해서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오일환 감독) 〈너에게 나를 보낸다〉 〈내게 거짓말을 해 봐〉(이상장선우 감독) 등이 그것이다. 장정일의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구조가 뚜렷하고 전복적인 성적 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제작자들의 기호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90년대의 대표적 베스트셀러 시집인 유하의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도 작가가 자신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이청준의 〈서편제〉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영화화 한 임권택 감독은 그 이

후 주로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

2천 년대 들어서면서 원작소설의 영화화는 다시 주목을 받는다.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에 의해 흥행 신화를 다시 쓴 〈공동경비구역 JSA〉가 ‘오늘의 작가상’을 받은 박상연의 〈DMZ〉를 원작으로 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하 감독은 역시 오늘의 작가상을 받은 이만교의 〈결혼은 미친 것이다〉를 두 번째 연출작으로 택했고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2004년에도 베스트셀러 소설의 영화화는 계속해서 시도되었다. 위기철의 〈아홉살 인생〉이 영화화되었으며 이규형 감독의 〈DMZ 비무장지대〉는 자신의 소설 〈이등

병 오딧세이〉를 영화화 한 것이다. 또 이 시대의 대표적 작가인 김영하의 소설 〈사진관 살인사건〉 〈거울에 대한 명상〉 등 단편 3편이 짜집기되어 변혁 감독에 의해 〈주홍글씨〉로 만들어졌다. 김영하의 소설은 이외에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가 〈파괴〉라는 제목으로 전수일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영화를 위한, 영화에 의한 시나리오

90년대 이후 영화계에 등장한 한국 신인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직접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2004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사마리아〉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빈집〉으로 각각 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은 1996년 〈악어〉로 데뷔한 이후 최근의 〈시간〉까지 13편의 영화가 모두 자신이 직접 쓴 오리지널 시나리오다.

또 2004년과 2005년 칸 영화제에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극장전〉으로 진출한 홍상수 감독 역시 데뷔작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만 구효서의 〈낮선 여름〉을 원작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이후 〈강원도의 힘〉 〈오! 수정〉 〈생활의 발견〉과 역시 최근에 개봉한 〈해변의 여인〉까지 모두 감독 자신이 직접 쓴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만든 것이다. 소설가 출신인 이창동 감독 역시 마찬가지다. 데뷔작인 〈초록 물고기〉부터 〈박하사탕〉과 〈오아시스〉도 감독 자신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해 한국 영화의 질적 우수성을 세계에서 공인받게 한 박찬욱 감독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데뷔작 〈달은 해가 꾸는 꿈〉과 〈삼인조〉를 비롯해서 〈복수는 나의 것〉, 복수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친절한 금자씨〉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까지 모두 박찬욱 자신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다. 다만 칸에서 수상한 〈올드보이〉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역시 박찬욱 감독이 과감하게 각색해서 각색된 작품의 판권이 다시 일본으로 팔린 바 있다.

최근 한국 영화의 시나리오 작업 능력은 매우 우수해졌다. 〈조폭 마누라〉나 〈달마야 놀자〉 등의 시나리오 판권이 할리우드에 팔렸으며 최근 국내 개봉한 산드라 블록, 키어누 리브스 주연의 〈레이크 하우스〉는 한국 영화 〈시월애〉가 최초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 것이다. 이외에도 최진실, 박신양 주연의 〈편지〉가 태국에서 리메이크 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 국내 개봉한 바 있다.

특히 인터넷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인터넷 작가들의 작품이 활발하게 영화화되고 있다. 귀여니의 〈그놈은 멋있었다〉나 〈늑대의 유혹〉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인터넷 만화작가 강풀의 작품들은 대부분 영화 판권이 팔렸으며 그중에서 올 여름 공포 영화로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그 외에도 B급달궁

이라는 인터넷 작가의 〈다세포 소녀〉는 이재용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고, 케이블 TV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원작소설과 원작만화를 채택한 외화들

최근 국내 개봉된 외화들 중에서도 원작소설 혹은 원작만화를 영화화 한 작품은 많다. 〈중앙역〉으로 베를린 영화제 대상을 받은 브라질 출신의 윌터 살레스 감독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쿠바 혁명에 가담해 카스트로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체 게바라의 일대기를 영화화했다. 〈모타사이클 다이어리〉는 체 게바라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중에서 23살 청년기의 여행을 다룬 것이다. 체 게바라가 개인적 관심사에서 사회로 시선을 넓히게 된 결정적 계기가 23살 때의 라틴 아메리카 대륙 여행이며, 그는 그때의 경험을 자신이 직접 책으로 쓴 바 있다. 국내에는 체 게바라 평전과 사진집 등 관련서적 수십 종이 번역되어 있다.

이외에도 일본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베스트셀러 〈냉정과 열정 사이〉나 가타하마 교이치의 소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타나베 세이코의 원작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등이 영화로 만들어져 국내 개봉되었다. 〈오페라의 유령〉은 원래 1911년 발표된 가스통 르루의 소설이 원작이지만,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이 워낙 유명해서 원작자가 가려져 있을 정도이다. 1985년 출간된 크리스 반 알스버그의 동화책 〈플라익스프레스〉도 영화화되었다.

문학, 언제까지 영화의 사랑을 독차지 할 것인가

미국의 문학비평가인 레슬리 피들러는, 문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크린과 제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작소설의 영화화는 문학과 영상의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영화의 근본인 내러티브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미 소설로 대중들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심한 영화산업의 특성상 원작소설의 영화화는 제작자들을 안심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방법적 측면에서 문학과 영상은 서로 간통하고 있다. 소설 창작자들은 영상적 기법, 눈에 보이듯 묘사하는 글쓰기라든가 빠른 장면전환 등을 적극 이용하고 있고, 영상창조자들은 문학 언어의 내면적 독백이나 의식의 흐름을 이용하여 영상적 깊이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영화의 프리 프러덕션, 즉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기획은 세계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김기덕, 홍상수, 박찬욱, 이창동 등의 감독들이 모두 자신이 쓴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영화 부흥이 감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영화감독이 되기 힘들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무장된 우수한 인재들이 문화보다는 영화로 방향전환하면서 이루어진 현상이다. 영상적 부가가치가 문학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

영화와 음악은 하나다

음악을 빼놓고 영화를 말할 수 없다. 영상에 몰입하는 순간에도 음악은 관객의 시선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 대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된 초창기 영화음악이 이제는 영화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장르로 자리매김 하였다. 영화 속에서 음악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해보자.



글 _ 한상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수석프로그램머

영화는 111년 전인 189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루이 루미에르와 오귀스트 루미에르 형제에 의해 처음으로 상영되었다. 영화에 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하나의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계 최초로 상영된 그 영화에 음악이 부수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는다. 많은 기록들은 루미에르 형제가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시네마토그래프를 상영했을 때 이미 한 대의 피아노가 음악을 연주했다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영화가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영화음악도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성영화에 왜 음악이 도입되었을까
영화음악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은 몇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가능하게 한다. 즉 영화가 음악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의 선택이었고, 따라서 논리적으로 영화에는 음악이 없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명히 이 당시 음악은 영화의 물질적인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요소만을 지닌 첫 무성영화에서부터 영화음악은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만일 영화음악이 하나의 선택이었다면, 요즘처럼 토키(talkie)가 일반화된 시기에 도 음악이 없는 영화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의외로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금 곧 DVD 판매점에서 알프레드 히치콕의 <새>와,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세브리느>를 구입해 보라. 이 두 영화에서는 상식적 의미의 영화음악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히치콕 감독의 영화 <새>는 음악 없이 시각적 요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다. 물론 <새>에서 여주인공 멜라니(티피 헤드렌)는 영화 속에서 드뷔시의 피아노곡 <아라베스크>를 연주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용 바깥에서 첨가된 음악'은 두 영화에 없다.

그렇다면 시각적 요소만을 지닌 초창기 무성영화에 청각적인 음악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거론되는 것으로는, 아직 방음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사기에서 들리는 소음 및 관객들의 웅성거림을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음악이 도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화음악의 존재 이유에 심리적·미학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즉 시간예술로서의 영화는 (마치 음악처럼) 리듬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청각적인 리듬 없이는 영화를 하나의 형태로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었다.

청각적 리듬 없이 시간예술인 영화가 존재하기 힘들다면, 영화에서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일 것이며, 그 경우에는 명확한 의도를 지녀야만 할 것

이다. 위의 사례를 다시 본다면, <새>에서 히치콕은 시각적 요소들로 구성된 이른바 '순수영화'를 의도했었으며(그는 <헝기증> <사이코> 등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행했다), <세브리느>는 꿈과 현실을 뒤섞어 초현실주의적 효과를 의도한 경우였다. ("거울속에는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지"라는 이상의 시에서처럼 꿈의 세계는 무성의 세계이다.)

창조적 의미를 부여하는 영화음악의 기능

영화음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보통의 관객에게 영화음악은 우선 그 영화의 인상적 장면을 기억해내고 감정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러브 스토리>의 멜로디를 들으면서 두 연인의 슬픈 사랑을 연상하고, <태양은 가득히>의 주제곡을 통해서 주인공 알랭 들롱의 빛나간 야망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창백한 푸른 눈동자 Pale Blue



음악은 등장인물의 내부 심리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영화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인물의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음악만큼 강력한 것은 없을 것이다.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에서 주인공(브래드 데이비스)이 탈옥하는 마지막 장면은 그 좋은 사례이다. 조르지오 모로더는 이 장면에서 전자음악으로 박동 소리를 만들어 주인공을 계속 따라다니게 함으로써 그의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해낸다.

Eyes)를 들으면 전도연과 한석규가 출연했던 <접속>을 금세 떠올린다. 그러나 영화음악의 역할은 그 이상으로 입체적이며 다각적이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영화음악의 주요 기능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먼저, 음악은 등장인물의 내부 심리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영화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인물의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음악만큼 강력한 것은 없을 것이다.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에서 주인공(브래드 데이비스)이 탈옥하는 마지막 장면은 그 좋은 사례이다. 조르지오 모로더는 이 장면에서 전자음악으로 박동 소리를 만들어 주인공을 계속 따라다니게 함으로써 그의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해낸다.

두 번째로, 인물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전통적인 할리우드 영화음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곡가는 리하르트 바그너였다. 바그너는 그의 웅장한 오페라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요소로서의 음악의 가능성을 발전시켰다. 특히 유도동기(라이트모티프)의 사용이라는 방식은 할리우

드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 결과 특정한 멜로디는 특정한 인물을 상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닥터 지바고>에서 유명한 <라라의 테마>는 지바고(오마 샤리프)가 라라(줄리 크리스티)를 생각할 때, 또는 라라와 함께 생활하는 장면에서만 사용된다. 이 테마가 라라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테마 음악은 인물 이외의 대상까지 적용될 수 있다. <조스>에서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테마음악은 식인 상어를 상징한다. 물속에서 카메라가 인간에게 접근해가면 이 테마음악이 음산하게 들릴 때 상어가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밖에도 특수한 악기를 사용함으로써 영화의 특수한 시공간을 표현하는 기능, 영화에 감성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능, 편집에 의해 인위적으로 연결된 매체에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 등 영화음악은 한 편의 영화를 통해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수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좀더 성숙한 시각으로 영화를 감상하려는 관객이라면 사용되는 음악이 그 영화의 내용과 얼마만큼 창조적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를 생성해 가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음악은 영화의 또 다른 스토리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영화음악을 검토해 보자. 1970년대 이후 영화음악은 극히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후기 낭만주의적 고전음악, 빅밴드와 모던재즈 등 재즈음악, 전자음악 및 현대음악 등이 경계 없이 영화에서 사용된다. 또한 1980년대 뮤직비디오의 유행으로 시작된 팝음악의 사용 역시 영화음악의 주요 특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음악적 특성을 일반화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영화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하나의 영화사조가 음악 장르와 서로 구조적 관계를 맺는 흥미로운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까지 프랑스에서 일어난 '누벨바그(새로운 물결)' 운동과 재즈음악의 관계가 대표적 사례이다.

1957년 루이 말 감독은 자신의 데뷔작 <사형대의 엘리베이트>를 만들면서 당시 파리에 체류하고 있던 마일즈 데이비스에게 음악을 부탁했다. 마일즈 데이비스는 5인조 콤보를 구성해 영화 전체를 재즈음악으로 채웠다. 이어서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 트뤼포의 <피아니스트를 쏘라> 등 재즈풍의 음악을 사용한 영화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영화계는 '누벨바그'라는 새로운 사조에 주목했다. 지금 시점에서 돌아볼 때, '누벨바그'와 재즈음악에서는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누벨바그도 재즈음악도 이야기(재즈의 경우는 악보로 쓰인 작곡가의 음악)를 덜 중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 이야기 및 악보의 기본 멜로디는 '다른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7인의 사무라이>는 음악용어인 소나타 형식의 구조와 그 이야기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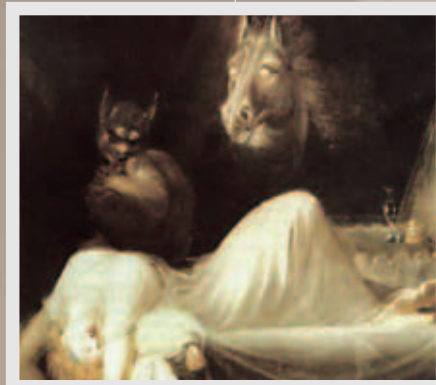
<피아니스트를 쏘라>의 재즈풍 음악은 당시 프랑스에서 일어난 누벨바그 운동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서 훨씬 중요하다. 그 대신 두 가지 모두 현재라는 시점이 지닌 일회성과 우연성의 포착에 힘을 기울인다. 즉 누벨바그도 재즈음악도 모두 자발성과 즉흥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시간예술로서 영화와 음악의 구조적 유사성은 한 명의 대중영화 감독의 작품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흔히 '소나타 형식'과 '변주곡 형식'이란 음악용어를 사용해 분석된다. 대표작인 <7인의 사무라이>는 '제시-발전-재현'을 기반으로 하는 '소나타 형식'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며, 또 다른 대표작 <라쇼몽>은 하나의 테마가 변형 반복되는 '변주곡 형식'에 합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르투어 슈니츨러 원작 희곡을 막스 오펔스가 영화화한 <라 롱드 La Ronde>라는 영화는(국내에서는 <요정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DVD 출시됨), 음악의 '론도 형식'을 그 형식적 기초로 삼기까지 한다. 영화 전체가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것이다.

영화와 음악과의 관계는 이처럼 상식적 차원을 넘어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영화와 영화음악의 역사는 동일한 기간을 지니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영화의 수만큼 영화음악이 존재한다. 영화음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그 작품에 대한 풍요롭고 깊이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

그림을 보러 영화관에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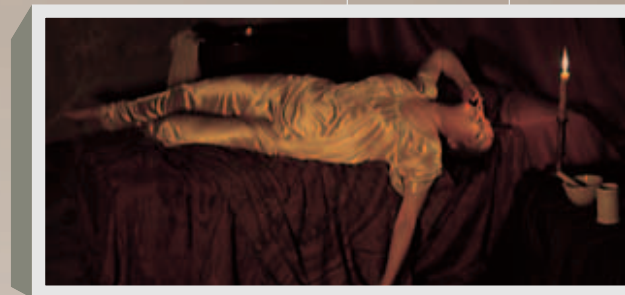
《O후작 부인》에 인용되었던 피슬리의 《악몽》.

영화제작에서 미술적 부분은 중요한 요소다. 당대 잘 나가는 미술가들은 영화의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시키는 작품 속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영화관에 초대되어 그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림을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오기도 했다. 미술이 부수적 요소가 아닌 영화의 주된 모티브가 되기도 하면서 미술은 영화 속으로 그리고 영화는 미술 속으로 빠져들어 벽을 허문 사랑을 나누고 있다.

글 _ 한창호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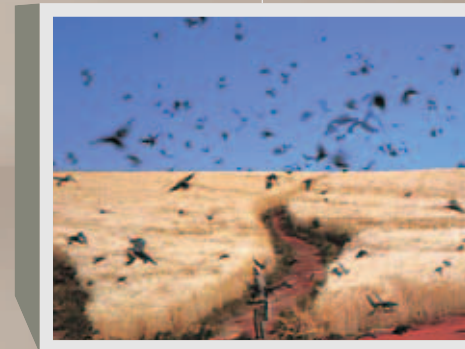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영화 《꿈》을 통해 스크린에서 다시 태어났다.



에릭 로메르의 《O후작 부인》.



로베르트 비네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꿈》.

이탈리아에 유학할 때다. 늦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인데, 도시는 바깥스 간 사람들로 텅 비고, 나와 같은 가난한 외국인들만 한가하게 거리를 어슬렁거릴 때이다.

시(市)에서는 밤이 되면, 휴가도 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심야의 야외극장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탈리아의 노인들,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이 관객의 대부분이다.

그날 밤도 엄청 더워,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의 광장으로 향했다.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화들을 보며 더위도 있고, 운도 좋으면 좋은 사람들까지 만나 한 잔하기 위해서다. 영화를 보러가기 전에 나는 빠뜨리지 않고 상영작을 미리 챙기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무엇을 상영하는 지도 모른 채 광장

에 도착했다.

내가 있던 볼로냐 시에는 유럽에서도 유명한 시네마테크가 있는데, 광장의 영화 프로그램은 그 시네마테크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상영작 자체는 믿을 만한 수준이었다. 우리처럼 남녀노소 아무나 볼 수 있는 상업영화를 다시 틀어대며 '문화의 밤'을 운운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밤의 광장은 거장의 걸작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반 고흐를 바라보는 구로자와의 시선

그날 밤 스크린으로 본 영화는 일본 감독 구로자와 아키라의 《꿈》(1990)이었다. 에피소드 영화인데, 꿈을 꾸 8개의 이야기가 연결돼 있다. 화가 지망생이었던 유미주

의자 구로자와가 색깔과 화면구성의 아름다움에 집착한 흔적이 너무 지나쳐, 초반부는 좀 심드렁하게 봤다. 화장도 지나치면 꼴볼견 아닌가. 그런데, 중간쯤 지났을 때 '까마귀'라는 에피소드에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구로자와는 미술학교 시절부터 흠모했던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에세이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다.

얼마나 감독이 화가를 사랑했는지, 감독의 분신 같은 영화 속 주인공이 반 고흐의 그림 속을 황홀경의 상태로 걸어 다닌다. 반 고흐가 그렸던 유명한 풍경화들이 병풍처럼 들어서 있고, 일본인 화가는 소원을 성취한 사람마냥 즐거운 표정으로 그림의 이곳저곳을 산책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반 고흐의 그림과 배우의 걸어 다니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게 결합됐다. 급기야 마지막 장면에서 반 고흐의 걸작으로 알려진 《까마귀가 나는 밀밭》(1890)과 거의 같은 밀밭을 배경으로, 지평선을 넘어가는 반 고흐를 일본인 화가가 애뜻하게 바라볼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대략 10분쯤 진행된 이 에피소드에서 관객은 반 고흐의 그림들을 실컷 볼 뿐만 아니라, 그 그림들만으로도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화가에게 연민마저 느끼게 된다. 외롭고 쓸쓸한 화가 반 고흐는 구로자와의 꿈을 통해 스크린 위에 화려하게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 속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같은 몽상적인 희망을 구로자와는 영화로서 달성한 셈인데, 그림 속을 걷겠다는 이런 꿈은 사실 영화의 초창기부터 있었고, 그래서 영화와 미술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영화 <세브리노> 한 장면의 모티브가 된 밀레의 <만충>.



<세브리노>에서 브누엘 감독은 두 남자의 기도하는 장면을 마치 밀레의 <만충>처럼 찍었다.

하나의 그림이 스크린 속에서 그대로 재연되며, 스크린은 점점 더 그림을 닮아 갔다.

그런데 그림이 어떤 장식적인 요소로 쓰이는 데 한정되지 않고, 이야기의 주요한 모티브로 동원되기 시작하면서, 미술적 교양은 영화읽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수준에까지 도달한다.

그런 변화에 전환점을 마련한 감독들은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감독들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게, 두 나라는 미술과 영화 모두에서 풍부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로트렉의 <아킬레스 바의 초콜릿 댄싱>은 빈센트 미넬리 감독에 의해 화면에 그대로 재연되었다.

‘독일표현주의’, 영화와 미술의 본격적 만남

영화사에서는 그런 미학적 현상을 ‘독일표현주의’라고 부른다. 1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일어난 영화 미학이다. 영화는 철저히 세트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간에서 촬영됐는데, 화가들이 동원돼 세트 위에 세상을 은유하는 스타일 넘친 그림들을 그렸던 것이다. 그 선구작이자 걸작으로 남아 있는 영화가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1920)이다. 정신병원 원장이 몽유병환자에게 최면을 걸어 밤만 되면 살인, 납치 등 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이다. 그런 광기의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 화가들은 건물들을 삐딱하게 그리고, 길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다. 어느 것 하나 바른 게 없고, 모든 공간이 손가락 하나로 탁 쳐도 넘어갈 듯 아슬아슬하다.

전쟁에서 패배한 당시의 독일 영화인들은 조국을 정신병원에 은유했고, 자신들은 그 병원에 감금된 환자로 묘사했던 것이다. 이런 불안한 공간을 만드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미술사조였던 표현주의의 화가들이 동원됐다. 헤르만 바름, 발터 라이만, 발터 뢰리히 등의 화가는 이 영화 하나만으로도 세계 영화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지금도 과장되고 왜곡된 선 등으로 구성된 배경을 보면, 당시 독일인들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제 영화제작에서 미술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됐다. 할리우드에서도 세트 제작에 화가출신들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아예 감독으로 데뷔해 탁월한 공간구성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파리의 미국인>(1951) 등의 뮤지컬들을 발표한 빈센트 미넬리다. 사랑의 절정에 이른 연인들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좋아하던 프랑스 화가들의 작품을 배경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아예 로트렉의 <아킬레스 바의 초콜릿 댄싱>(1898)의 모습은 배우 진 켈리로 하여금 그대로 재연하게 하기도 했다.

하나의 그림이 스크린 속에서 그대로 재연되며, 스크린은 점점 더 그림을 닮아 갔다. 그런데 그림이 어떤 장식적인 요소로 쓰이는 데 한정되지 않고, 이야기의 주요한 모티브로 동원되기 시작하면서, 미술적 교양은 영화읽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수

준에까지 도달한다. 그런 변화에 전환점을 마련한 감독들은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감독들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게, 두 나라는 미술과 영화 모두에서 풍부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감독은 프랑스 누벨바그 출신인 에릭 로메르다. 그는 1976년 <O후작 부인>을 만들며, 낭만주의 시대의 화가 하인리히 뤼슬리의 <악몽>(1781)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림에선 풍만한 육체의 여인이 잠에 빠져 있는데, 그녀의 배 위에는 시커먼 악마 같은 동물이 한 마리 턱앉아 있다. 그녀는 ‘사랑’에 관련된 꿈을 꾸고 있는 듯 하고, 악몽이 늘 그렇듯 사랑의 파트너는 정상적인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금지된 사랑의 악몽에 그림 속의 여자는 빠져 있는 것 같다. 로메르도 그렇게 그림을 해석하고 이용했다.

후작부인은 전장의 어느 오두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악몽>의 여인처럼 몸을 비비 틀어댄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 꿈 장면 이후, 이상하게 그녀의 배가 점점 불어오는 것이다. 이야기는 임신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아기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를 밝히는 쪽으로 진행되는데, 영화의 도입부에 등장한 뤼슬리의 그림 같은 장면은 이야기의 전개를 암시하는 주요한 모티브로 이용됐던 것이다.

영화관은 그림의 전시장

미술에 풍부한 교양을 가진 감독들은 이제 화면구성 단계에서 회화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는 너무나 많은 그림의 인용으로 넘쳐, 마치 거대한 전시회라도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을 준다.

그의 대표작 <1900>(1976)은 바로크, 인상주의, 그리고 아방가르드뿐만 아니라 사진 예술의 인용까지 포함돼 있어, 그야말로 회화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쯤 되면 영화관은 바로 미술관인 것이다.

스크린이 마치 캔버스라도 되는 듯, 마구 그림을 그리는 감독들 중에는 우연치 않게도 화가이거나 화가 지망생들이 많다. 스타일이 넘치는 화면을 자랑하는 감독들치고 미술과의 인연이 깊지 않은 이가 드물다. 기괴하고 아름다운 화면을 보여주는 데이비드 린치, 그로테스크한 공간 구성의 대가 로만 폴란스키, 귀엽고 무서운 이미지에 빛나는 숨씨를 드러내는 팀 버튼 등은 모두 미술학교 출신 감독들이다.

이런 감독들의 독창적인 ‘그림 그리기’는 스크린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장식한다. 포스트모던 이후의 현재에는 이제 영화의 이미지가 거꾸로 미술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됐다. 시각예술의 대표적인 두 장르인 영화와 미술은 자연스럽게 서로 만난 뒤, 자신의 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

정중동(靜中動)의 카리스마 단국대학교병원 장무환 병원장

대학병원의 CEO, 뛰어난 의료실력까지 갖춘 사람.
그러나 몸에 베인 겸손함과 따뜻한 인간미가 매력적인 사람.
오래 알아온 직원들로부터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으로 불리는 사람.
그가 바로 지난 3월 제 9대 단국대학교 병원장에 취임한 장무환 병원장이다.

글_ 최수향 자유기고가 · 사진_ CSD



그를 만난 날, 조금 피곤해 보였던 그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려운 사람 들에게 헌혈증서를 기증하자는 취지로 열린 전 직원 대상의 헌혈 행사에 그는 1호로 헌혈을 하고 오는 길이였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언제나 무슨 일이든 술선하는 그를 두고 직원들은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라며 혀물없이 다가간다. 그를 닮아서 일까. 단국대병원 또한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환자중심병원, 지역의료발전에 공헌하는 단국대병원

"나는 환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최고의 병원경영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병원을 일컫는 많은 수식어들을 떼어내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병원이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 병원은 그런 병원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 지역사회 주민 개개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친절하고 따뜻한 병원, 환자중심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여 중부권지역 최고병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게 그의 말은 병원본연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말이고 기본에 충실한 말이다. 그런 까닭에 그에게 병원장 자리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 자리가 아니다. "개인적인 명예는 있지만 결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병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자 병원 구석구석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병원장이 돼서 출세했다는 것보다는 부담스럽지요. 직원들로부터 병원장되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말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홍보팀 직원에게서 그가 정치적, 외교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귀뜸이 있었지만 "자부심은 갖되 자만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은 참으로 진솔했다. 94년 5월, 단국대병원의 개원멤버로 참여한 그는 교육연구부장, 기획실장 등 병원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준비된 병원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단국대병원의 의료정신인 '인간중중', '생명중중'은 바로 환자중심병원을 강조하는 말이고 그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외래 공간의 부족을 큰 불편으로 꼽는 그는 "외래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검사와 외래진료가 한곳에서 이뤄지게 하여 환자편리성을 높이겠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아침에 입원해 저녁에 퇴원하는 '낮병동' 제도를 시행, 환자들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병상가동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충청도에서도 거리가 먼 서산·당진·태안 등의 지역 환자들을 위해 '당일 진료·당일 검사(One Stop)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모든 시스템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근 중부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콜센터(1588-0063)' 또한 환자중심 시스템으로 내원객들이 진료 예약·변경·취소 등의 민원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신 의료 장비 도입은 환자에게는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길이고 의료진에게는 진료의욕과 진료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최근 100억 원을 투자해 의료 장비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 중이다. '단국대병원의 첨단 전문화 병원'을 위해서는 올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암 관련 질환 진료기능을 체계화해 대학병원에 걸맞은 암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료과별로 총 14개 암전문팀을 구성하여 과별 협진을 통한 체계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역병원은 아무리 잘해도 대형병원과 비교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국대병원은 이비인후과의 '어질병 클리닉'을 개원 때부터 특화시킨 이후, 전국에서 환자가 찾아주고 있을 정도로 어질병에서는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심장파트 부분도 충청권에서 뛰어난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 입장에서 명의란 경력, 연륜, 실력이 충분히 갖춰진 의사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1시간 대기했는데 겨우 5분 진료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업적보다는 환자에게 얼마나 애정을 갖고 진료해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환자들은 차라리 실력은 조금 떨어져도 시간을 많이 내주고 성심성의껏 환자를 봐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수술을 예로 들더라도 환자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수술은 잘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만족으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지요."





소중하고 영원한 것은 인간관계, 역사지의 삶

그는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다. 병원의 자랑거리를 묻자 망설임 없이 “월급이 나오지 않은 달도 있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한 직원들”이라고 말한다. 병원의 역사가 젊기에 비록 연륜은 짧지만, 그만큼 액티브하고 발전가능성이 많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관계 또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의 말은 젊은 날 그가 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서울의대 72학번인 그는 긴급조치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사회를 인식하고 인생의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 의대생으로서 빈민지역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75년 말, 그는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으로 6개월 정도를 복역한다. “정치적인 것은 금방 표가 난다”며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는 그에게 그 시기는 청춘의 빛났던 한 시절로 기억된다. 의사의 길을 알게 해주었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몸소 깨우치면서 배웠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정중동의 카리스마로 겸손하고 충실하게 물 흐르듯 삶을 사는 그가 있는 것이다. 복학 후 그는 안과를 전공한다. “수술과 치료 결과가 뚜렷하고 진단과 치료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드라마틱한 면까지 있는 안과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과”이고 지금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망막, 유리체를 세부전공한 그는 전공의 시절 인연을 맺었던 환자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게 진료 받으러 온다고 들려준다.

“배우는 과정에 있던 전공의인 내가 실력이 지금보다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 분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은 당시에 믿음을 주고 친절하게 해 준 것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

다. 그분을 볼 때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진료하는 의사, 실력이전에 친절함을 갖춘 의사, 환자와 의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그의 좌우명인 역지사지(易地思之)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명의를철학과도 이어진다.

“의사 입장에서 명의란 경력, 연륜, 실력이 충분히 갖춰진 의사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1시간 대기했는데 겨우 5분 진료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업적보다는 환자에게 얼마나 애정을 갖고 진료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환자들은 차라리 실력은 조금 떨어져도 시간을 많이 내주고 성심성의껏 환자를 봐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수술을 예로 들더라도 환자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수술은 잘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만족으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까닭에 그는 후배의사들에게도 “평생 업으로 삼고 선택해야 견뎌 낼 수 있는 것이 의사란 직업이기에 수입이나 조건, 시대 유행에 따라 과를 선택한다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조언한다. 그는 복학하기 전, 미래도 불투명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만 같았던 시절에 그를 이해하고 결혼해 준 아내에 대한 마음도 드러낸다.

“그때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평생 같 것 같았는데 잊기 잘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 짱아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사랑은 살면서 계속 배우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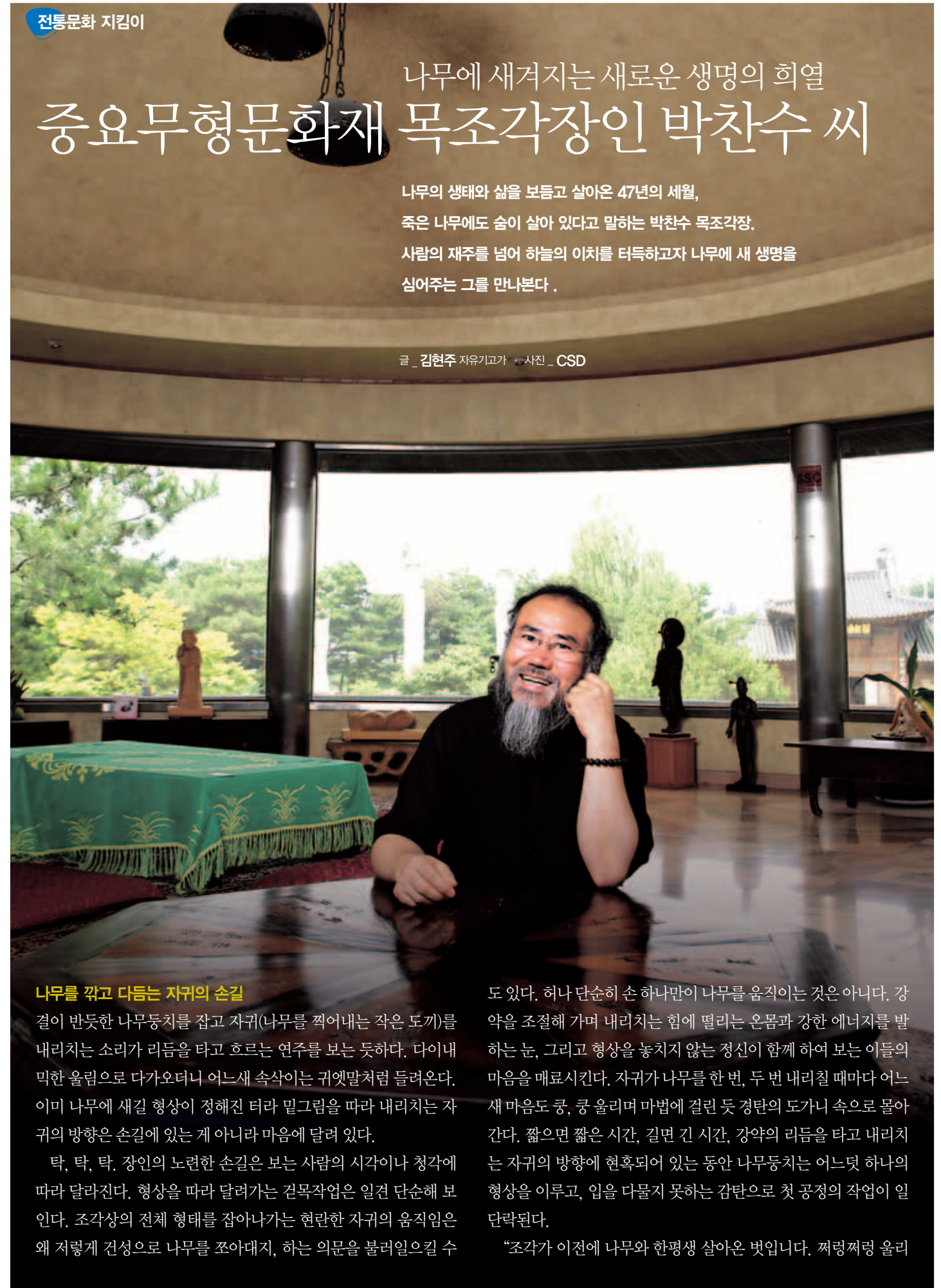
취임한지 5개월여 쯤, 공개적인 인터뷰를 쉬이 하지 않는 그에게 그와의 만남은 귀한 시간이었다. 의사는 의료 활동을 할 때 가장 편안하고 즐겁다는 그. 사회적 업적보다 의사로서 평생 직무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 인간적인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한다면 단국대병원으로 가볼 일이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역지사지로 진료와 경영에 힘쓰는 그가 있기 때문이다. ☺

전통문화 지킴이

나무에 새겨지는 새로운 생명의 희열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인 박찬수 씨

나무의 생태와 삶을 보듬고 살아온 47년의 세월,
죽은 나무에도 숨이 살아 있다고 말하는 박찬수 목조각장.
사람의 재주를 넘어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고자 나무에 새 생명을
심어주는 그를 만나본다.

글_ 김현주 자유기고가 사진_CSD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자귀의 손길

걸이 반듯한 나무등치를 잡고 자귀(나무를 찍어내는 작은 도끼)를 내리치는 소리가 리듬을 타고 흐르는 연주를 보는 듯하다. 다이내믹한 울림으로 다가오더니 어느새 속삭이는 귀엣말처럼 들려온다. 이미 나무에 새길 형상이 정해진 터라 밑그림을 따라 내리치는 자귀의 방향은 손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탁, 탁, 탁. 장인의 노련한 손길은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청각에 따라 달라진다. 형상을 따라 달려가는 길목작업은 일견 단순해 보인다. 조각상의 전체 형태를 잡아나가는 현란한 자귀의 움직임은 왜 저렇게 건성으로 나무를 쪼아대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도 있다. 허나 단순히 손 하나만이 나무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강약을 조절해 가며 내리치는 힘에 떨리는 온몸과 강한 에너지를 발하는 눈, 그리고 형상을 놓치지 않는 정신이 함께 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매료시킨다. 자귀가 나무를 한 번, 두 번 내리칠 때마다 어느새 마음도 쿵, 쿵 울리며 마법에 걸린 듯 경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간다. 짧으면 짧은 시간, 길면 긴 시간, 강약의 리듬을 타고 내리치는 자귀의 방향에 현혹되어 있는 동안 나무등치는 어느덧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감탄으로 첫 공정의 작업이 일 단락된다.

“조각가 이전에 나무와 한평생 살아온 벗입니다. 찌렁찌렁 울리



“나무는 제게 다가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소’ 하고 말하죠.

나무의 성질이나 무늬 결에 따라 저마다 되고 싶은 강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대로 제 심성과 기술이 더하여 하나의 형상이 탄생되는 거죠. 저의 심중 속에 태어나는 자식 같은 작품들이 항상 그렇게 세상에 나와 나무의 생을 다시 백 년, 천 년을 이어가고 있지요.”

는 자귀소리를 들을 때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려는 산모의 희열을 느끼게 되죠. 나무를 통해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목아(木芽) 박찬수(57). 위아래 검은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른 그의 모습은 마치 수도승이나 구도자와 같다. 그런 그도 가난이 싫어 우연한 기회에 조각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어린 시절이 있었다. 스승에게 사사 받거나 특별히 나무 조각에 흥미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너무 가난해서 굶주린 배를 채울 궁리에 바쁜 나날을 보낸 어린 시절이었다.

경남 산청 화전을 이루고 살던 빈농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돈 벌려 도시로 떠난 아버지 대신 집 안 제사를 지내야 했고, 어머니와 함께 5일장을 나서서 농산물을 팔아 끼니를 간신히 마련해야 했다. 도시로 이사를 한 후에도 초등학교 6학년울 다 마치지 못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그였다. 우유장사, 고구마

장사, 물장사, 심지어 화장실 오물을 푸는 일까지, 어린 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샷 밖에 받지 못하면서도 그마저도 고마워할 형편이었다.

그런 중 그의 오늘이 있게 새로운 삶이 찾아왔다. 1961년 숙식과 몇 푼의 급여가 지급되는 목각인형공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잔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잔일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퇴근한 밤이면 몰래 선배들의 눈을 피해 나무를 조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몰입해 나갔다. 몇 달 사이 그의 목조각 능력은 그 어떤 선배들의 실력보다 월등해졌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시기 많은 선배들로부터 몰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기도 했다. 유독 그의 능력을 인정해준 사람이 그곳의 공장장이었다. 공장장은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는 중학교 진학을 권유했고 곧, 공장장의 뜻에 따라 학교를 다니며 밑그림을 터득하는 미술반 활동을 시작했다. 그 덕분에 그의 오

늘을 있게 한 스승을 만났다. 이웃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이운식 선생이었다. 스승은 그의 작품을 보고 큰 가능성을 확인하고는 그에게 전반적인 미술공부를 시켜주었다. 몇 년 후 스승이 춘천으로 전근을 갈 때에도 그를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킬 정도로 그를 아껴주었다.

“당시는 몰랐지만 이운식 선생님은 제 오늘을 있게 하신 분이시죠. 당시는 작품을 만들어도 누구 하나 사 가는 사람이 없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돈의 욕심을 버리고 예술가로 거듭나게 도와주신 선생님이었지요.”

나무의 바람이 곧 형상의 거듭남으로 나타나

대개의 장인들이 그렇듯이 그의 가난도 아내를 맞이하면서 점점 풀리기 시작했다. 69년 목공예학원을 열었는데 수강생 중에 유독 그의 삶을 이해하는 여성이 있었다. 아내 안명자 씨였다. 그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부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다고 한다. 일본에서 불상을 다량으로 주문해 일본 사찰은 물론 가정에 목조각품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공예품 수출로 백만불 증서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을 있게 한 기반을 세운 것도 당시였다.

“나무는 제게 다가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소’ 하고 말하죠. 나무의 성질이나 무늬 결에 따라 저마다 되고 싶은 강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대로 제 심성과 기술이 더하여 하나의 형상이 탄생되는 거죠. 저의 심중 속에 태어나는 자식 같은 작품들이 항상 그렇게 세상에 나와 나무의 생을 다시 백 년, 천 년을 이어가고 있지요.”

가난한 소년이 건넌 길은 이제 세상에서 나무를 가장 잘 아는 목인(木人)으로 거듭난 듯하다. 나무의 생태와 삶을 함께 한, 나무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는 목인의 삶을 살아온 탓이리라.

그의 말에 의하면 나무는 죽어서도 숨을 쉰다고 한다. 제각각 숨을 달리 쉬며 나타나는 나무의 결에 따라 조각을 했을 때의 느낌이 다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결이 거칠고 굵은 괴목은 도깨비나 금강역사사천왕상을 만들고, 결이 부드러운 나무는 쪼고 다듬어 여쁜 여인상이나 문수동자, 보현동자 등을 만든다. 그 나무 결처럼 무엇이든 억지로 되는 법이 없고, 그저 나무의 성질이 가진 순리에 따라 조각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나무 속의 형상을 해방시키는 작업

미켈란젤로가 돌 속의 형상을 해방시키는데 자신의 능력을 다 바쳤듯이 그는 나무 속에 하나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목조에 헌신해온 작가이다. 그의 작업 과정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나무에게 다른 생명을 제공해주는 것인 까닭에 종교적인 엄숙성을 지니고 있다. 벌목하기 전에 나무 앞에 기도를 올리고, 생장환경과 생태를 고려하여 어떤 조각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안목과 경험,



차갑고 뜨거운 심정, 숙련된 기술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법상>에서 보여주는 섬세하고 유려한 솜씨, 인간의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의 절정을 보여준 <목조불감>은 한 토막의 나무를 집요하고 끈질기게 깎아낸 장인의 재능을 넘어, 깊은 신앙심이 없으면 완성할 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신라 경덕왕이 만불산을 조성하여 당태조에게 선물하였을 때 황제가 이를 보고 “신라의 솜씨는 하늘이 만든 것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고 감탄했다고 한다. 전통 목조각의 맥이 단절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 길을 걸은 그는 스스로 값을 따지지 않는 자유예술의 경지 속에서 목공예품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

사람의 재주를 넘어 하늘의 이치를 터득한 까닭일까. 그가 93년 사재를 털어 마련한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세운 목아박물관에는 47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그 유물들 일부와 그동안 제작한 공예품들을 올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불수교 120주년을 맞아 전통공예품으로는 최초로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프랑스 대통령이 초대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는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전통 목조각품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 볼 꿈에 젖어 있다. ㉠

<다빈치 코드>를 통해 또 다시 뜨거운 사랑에 빠진 르부르 미술관

MUSEE DU LOUVRE

프랑스 파리의 르부르 미술관의 명성은 그곳에 소장된 불후의 명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무엇보다 빠뜨릴 것 없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예술의 도시 파리. 그 중에서도 르부르 미술관은 세계의 걸작들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로 일년 내내 북적거린다. 소설 <다빈치 코드>가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르부르 미술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관심과 사랑 또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소설 속에서 묘사된 이곳의 신비로운 면면을 보기 위해 또 다시 파리를 그리고 르부르 미술관을 찾고 있다.

글 · 사진 _ 권기왕 여행 칼럼니스트





01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해부학자, 지리학자, 토목가, 그리고 뛰어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사에 있어 가장 천재적인 인물로 꼽힌다. 중세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그는 수많은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고 업적을 남겼을 만큼 다양한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어떠한 한계도 훌쩍 뛰어 넘었던 규정 불가의 위대한 선구자였다. 시대를 앞선 그의 능력을 두고 여러 가지 설(說)도 많았는데, 심지어 그는 SF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 SF 소설은 미래 세계에서 한 학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는데 때마침 타임머신 고장으로 현재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그 학자는 할 수 없이 과거에 살면서 앞선 능력을 발휘했다는 내용이다.

소설 통해 더욱 커진 호기심

얼마 전에는 다빈치의 대표작인 <최후의 만찬>의 숨겨진 해석을 시작으로 예수와 기독교의 비밀을 파헤친다는 내용의 소설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우리나라에서만 330만 부가 팔려나가는 등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소설 <다빈치 코드>는 위대한 선구자의 강인한 힘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모나리자>는 루브르의 얼굴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소장품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다. 가로 53cm, 세로 77cm... <모나리자>는 그 불후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크기는 의외로 아담하지만, 그 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가 담겨있다. 사람들은 그 미소를 두고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스러운 비밀을 품고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02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된 르부르 미술관과 <모나리자> 감상은 새삼스럽게 세계인이 동경하는 필견의 여행코스가 되었다.

매력적인 학자가 <모나리자>를 비롯한 다빈치의 작품 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파헤쳐가는 과정은 참으로 흥미진진해 잠시라도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는 흡입력을 발휘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르부르 미술관의 현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었다. 이 책을 읽으며 과거 르부르 미술관을 찾았을 때 해마다 미술관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르부르 미술관의 알려진 몇몇 곳들을 그저 찍고 둘러보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깨달았다. 그만큼 소설 속에 등장하는 르부르 미술관에 대한 묘사는 자세하고 생생했으며, 이곳에 대한 작가 덴 브라운의 지식은 해박하고 치밀했던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빈치 코드>를 읽고 나서 르부르 미술관을 구경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든다. 그리고 나에게는 앞으로 다시 찾아가야 할 여행지가 하나 더해진 셈이 됐다.

명작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비밀

르부르 미술관은 잘 알려졌다고 세계 최대의 미술관이다. 원래 이곳은 궁전 이었다. 1793년 프랑스 제1공화국은 구체제의 상징적 존재였던 르부르 궁전을 새로운 사회체제를 상징하는 예술의 전당으로 개조했고, 이로 인해 난공불락의 자랑하던 프랑스 왕조의 궁전은 시대를 지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으로 탈바꿈된 것이다.

- 01. 르부르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르네상스 회화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 02. 소설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는 르부르 미술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에서부터 시작된다.
- 03. <모나리자>만큼이나 유명한 작품인 밀로의 <비너스>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있다.
- 04. 미술관 건너편에서 여행객들을 위한 기념 포스터가 판매되고 있다.

르부르 미술관의 소장품은 세계 최대의 규모로 어림잡아 40만 점에 이른다. 그것들은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앗시리아, 중세 유럽의 미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회화와 조각, 보석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망라하며 인류 문화예술의 대서사시를 펼쳐 보인다.

그 중 <모나리자>는 루브르의 얼굴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소장품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다. 가로 53cm, 세로 77cm... <모나리자>는 그 불후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크기는 의외로 아담하지만, 그 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가 담겨있다. 사람들은 그 미소를 두고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스러운 비밀을 품고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작가 덴 브라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이미지를 이용해 비밀스러운 소설의 문을 하나씩



03



04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르부르 미술관 외에도 소설의 무대가 된 곳들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게 되었다. 파리의 생 실피스 성, 런던의 템플 교회, 웨스트민스터 사원, 로실린 채플 등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새롭게 등장해 호평을 받고 있다.

열어나간다. <모나리자>의 액자 유리에 쓰인 의문의 문구, 그것은 르부르 미술관의 관장이 죽기 전에 남긴 것인데 미국의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톰 행크스)이 그 열쇠를 찾아 나서면서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소설 속에서 종교의 거대하고 오래된 비밀은 파헤쳐지고 다빈치의 또 하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대두된다. 천재 다빈치는 후세의 누군가가 그것을 풀기를 바라며 그의 작품 속에 비밀을 풀기 위한 힌트를 숨겨 놓았다. 그리고 5백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빈치 코드는 한 젊은 학자에 의해 풀어지고 마는데, 이것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다.

작품 감상과 함께 소설 속 명소 둘러보는 여행의 재미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는 르부르 미술관에서 시작해 여러 도시를 섭렵하다가 다시 이 곳에서 끝을 맺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는 현대의 르부르 미술관을 상징하는 유리 피라미드의 의미를 절묘하게 설정하였다.

르부르 미술관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은 야외에 세워진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 전시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1989년에 세워진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은 중국계 미국인인 페이(IM Pei)가 설계한 것으로서 당초에는 이질적인 모습 때문에 반대가 심했으나 지금은 파리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르부르 미술관에 소장된 미술 작품은 각 부문마다 연대·지역별로 구분되어 르부르 궁전의 복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물에 고루 배치되어 있다. 회화·공예 부문은 2, 3층에 조각은 1, 2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미술 애호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19세기 후기 인상파의 작품들은 인상파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다가 근자에 오르세(Orsay) 미술관으로 옮겨 전시 중에 있다.

<모나리자> 외에 르부르 미술관의 수많은 소장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밀로의 <비너스>이다. 이 작품은 그리스의 밀로스 섬에서 발견된 여신상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1821년 르부르 미술관에 소장된 후 두문불출의 명작으로도 유명했으며 1964년 처음으로 세계 순회전시를 하였다.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르부르 미술관 외에도 소설의 무대가 된 곳들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게 되었다. 파리의 생 실피스 성, 런던의 템플 교회, 웨스트민스터 사원, 로실린 채플 등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새롭게 등장해 호평을 받고 있다.



01. 미술관의 서쪽 입구에 있는 카루젤 개선문.
02. 파리의 얼굴과도 같은 거리의 카페에서 사람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03. 르부르 미술관 인근의 갤러리를 둘러보는 것도 파리 여행의 색다른 재미다.
04. 센 강의 다리 위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미술학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아름다운 파리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곳

르부르 미술관을 나오면 파리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방인을 맞이한다. 박물관에 면하여 시내를 흐르는 센 강과 강변의 거리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이 거리는 오늘날 아름다움과 낭만의 도시 파리를 대변한다. 파리의 젓줄 센 강은 역사의 중심을 흐르면서 르부르 미술관을 비롯한 수많은 걸작 건축물들을 낳았다. 유네스코는 1991년 센 강변의 문화재들을 일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라고 말하였고 보들레르는 “모든 것, 추한 것들까지도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는 고도”라고 파리를 찬미했다. 수많은 예술가들과 문학가들이 파리를 찾아오고 있고 파리를 사랑하며 예찬한다.

르부르 미술관이 파리가 가진 그 숱한 아름다운 걸작 중의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이 소장하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유물과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이 곳이야말로 파리에서 가장 가볼만한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문화와 예술의 무대가 되었던 이 아름다운 도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되었다 해도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편의 소설을 통해 세계인의 관심은 르부르 미술관을 통해 다시 한번 파리로 향하게 되었다. ☺



무한의 우주와 닿아 있는 집 침성재(瞻星齋)

흔히들 창밖 자연의 변화에서 계절을 느끼곤 하지만 하늘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표정이 있음을 쉬이 잊고 사는 듯하다. 하늘은 맑을 때, 혹은 눈과 비가 올 때 언제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하늘을 향해 열려있어 더욱 특별한 '침성재'를 소개한다.

글_ 이 일 자유기고가 · 사진_ 건축가 제공



02

경 기도 가평에 위치한 침성재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 무한한 우주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이곳은 한 낮의 찬란한 빛과 밤하늘의 무수한 별이 함께 존재하는 집이다. 건축주는 주말을 이용해 자연과 더불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집, 침성재를 마련했다.

작지만 많은 것을 담아내는 여유

침성재의 정서적 풍요로움의 원천은 훌륭한 주변 경관에 있다. 시내가 주택 바로 곁으로 흐르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바위들과 푸르른 소나무가 아늑하게 집을 감싸고 있다. 하지만 100평 남짓의 대지는 이렇게 풍부한 자연 경관을 담아내기엔 제약 아닌 제약이 되었다.

침성재를 설계한 토마건축사사무소 민규암 소장은 이러한 제약을 공간구성을 통해 풀어 나갔다. 그는 주변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대지 규모가 불만이었고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어린 시절 품었던 작은 꿈 하나를 불현듯 떠올렸다. '잠들기 전까지 별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것이 맑고 푸른 하늘이라면 또 얼마나 기쁠까...' 아이디어의 핵심은 공간의 수평적 제약을 수직적인 개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택의 중심에 수직적으로 개방된 공간을 배치하고, 전체적인 평면은 3개의 사선을 외곽에 설정하고 이 3개의 사선들이 만드는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을 따라서 평면을 형성시켰다. 이 사선들의 목적은 각기 방문자에게 건물을 빙 돌아서 북쪽의



03

01



01



02



03



04

01. 경사진 천장과 원형 구조물로 인해 거실은 매순간 다른 이미지가 연출된다.
02. 거실 상부 천장. 원통형 구조물과 V형 유리면이 만드는 조형미가 이색적이다.
03. 주변 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서속 식당 공간.
04. 시간에 따라 거실 벽면에 만들어지는 빛 그림자는 공간의 표정을 시시각각 풍요롭게 한다.

정원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 북쪽의 정원에는 주현관이 있는데 건축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관에 도달하기까지 시냇물과 그 주변의 검은 바위, 나무들을 감상하고 건물의 여러 면들을 음미하도록 동선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였다.

주말주택인 침성재는 공간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층에는 거실과 식당을, 2층에는 침실, 욕실을 독립적으로 배치했다. 또한 간결한 공간구성과 아늑한 외부공간의 느낌을 끌어들이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무한의 깊이를 담아내는 공간

침성재의 거실과 마주하는 사람들은 먼저 수직적인 높이에 압도된다. 9m나 되는 높이의 거실은 시각적인 개방감뿐만 아니라 공간의 극적인 변화가 주는 긴장감 때문에 웅장해보이기까지 한다. 더욱 눈여겨볼 점은 상부의 천장에 존재하는 둥근 구멍을 갖는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은 상단까지 이어지는 구멍이 다시 하늘을 향해 열려있어 그 안에 무한의 깊이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침성재는 하늘을 향한 수직적인 개방과 주변 자연 경관으

로의 수평적인 개방이 어우러져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선 무한의 공간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민소장은 어린 시절의 소망을 실현해보려고 마음먹고 시도했지만 설계 초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에 당면했었다. 먼저 거실 상부를 유리로 된 투명한 천창으로 개방한다면 여름 내내 과도한 일사량으로 실내가 찜통 같이 덥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래서 3m 높이의 깊은 원통형 구조물을 상부에 설치함으로써 과도한 일사량을 막고자 했다. 이 원통형 구조물을 통해서 실내에 적절한 일사량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졌다.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실내에는 하루 종일 태양광선이 만드는 빛과 공간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한편 원통형 구조물의 하부에는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줄 유리로 된 V자형의 천창이 설치되었는데 이 구조물은 빗물을 자연스럽게 모아서 배출시키기에 용이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또한 그 가운데 놓인 대형 철골 보를 이용해서 먼지에 쉽게 오염되는 천창의 유리면을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고안했으며, 안전을 위해 삼중의 라미네이티드 복층 유리를 사용했다. 이로써 유리 천창이 가질 수 있는 일사량 조절, 우수한 배출 및 오염에 대한 유지 보수성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



실페리크에 맞춰 볼레로를 추는 마르셀 랑데 1896, 유화, 145×150cm, 워싱턴 국립미술관

Toulouse Lautrec

미술 이야기

로트렉, 소외자의 영혼을 꿰뚫다

글 _ 조용훈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소외받은 영혼을 투명한 화폭에 담다

창문 밖, 햇살은 투명하다. 창외의 틈새를 비집고 침입한 빛이 그림 속 그녀를 축복하는 듯하다. 은은하게 파장을 그리며 빛에 의해 배경이 점차 밝게 살아난다. 햇살은 화면을 가득 채운 그녀의 흰 옷과 만나 눈부시게 표백된다. 흰 상의는 검은 치마와 극명하게 대비돼 그녀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킨다. 화면을 사선으로 가른 그녀의 자세도 화면을 긴장시킨다. 이는 탁자를 굳게 잡은 투박한 손에 의해 실감이 더해진다. 탁자에 놓인 옷을 세탁하다 문득, 그녀는 침입한 빛에 이끌려 시선을 외부로 향한다. 화가는 세부를 생략한 채 바로 그 순간, 그녀를 클로즈업한다. 톨루즈 로트렉(1864~1901)의 <세탁부>이다.

그녀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창 밖을 응시하는 중이다. 화가는 그녀가 갖는 호기심의 강도를, 찰랑 눈을 가리는 머리카락으로 대신한다.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으나 웬지 코와 입술 그리고 턱에서 그녀의 성격을 간파할 수 있을 것 같다. 로트렉은 슬쩍 얼굴을 가리는 머리카락만으로 그녀의 내면까지 담아냈던 것이다. 그녀의 아픈 기억을 로트렉은 알고 있었던 까닭일까.

모델 '카르망 고댕', 로자 라 루즈라는 이름으로 클럽에서 노래를 불렀던 여자. 종종 노래를 통해 슬픔을 토로했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친, 병약한 노동계급의 출신의 여성. 평소 말이



무희 라 루 1893, 과슈 · 검정분필, 63×47.5cm, 상파울로 미술관, 브라질

없고 조용했던 여자였다. 그래설까 밖을 향하기 위해 등을 힘껏 펴지만 그동안 참았던 노동의 하중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하다. 후시 로트렉은 카르망 고댕의 불우한 처지와 자신의 육체적 불구를 동일시했던 것은 아닐까. 니체라면 이 아름다움이 "진실로 결핍에서, 궁핍에서, 우울에서, 고통에서 유래되었던 말인가"(<비극의 탄생> 中)하고 물어볼 것만 같다.

<세탁부>는 2005년 11월 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2천240만 달러(당시 약 232억 원)에 낙찰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첫눈에 이 그림에 매혹당한 바 있었던 필자는, 소외받은 영혼의 내면을 간파하는 로트렉의 통찰력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라고 흡족했다. 또한 로트렉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내면을 탁월하게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육체적 불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록 부유한 가문에서 출생했으나 그 역시 부모의 불화와 별거, 그리고 후천적 하체 불구 등의 요인들에 의해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유독 사창가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도, 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약자의 집약체인 까닭이 아닐까.

영혼과 영혼이 통했던 고희와의 우정

그의 관심은 매춘부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부적응자도 예외는 아

필자 소개 _ 조용훈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 현대시를 전공했고 그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시와 그림이라는 친연한 두 예술 장르를 문화 주제론적으로 통찰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이에 관한 글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현재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역임하고 있으며 <탐미의 시대> (시와 그림의 황홀경) <근대시인연구>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몰랭루즈의 춤 1889-1890, 유화, 115×150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니었다. 고희와의 우정은 그 좋은 예이다. 그림에 대한 열정만으로 파리로 진출했으나 그저 주변부를 기웃거리기 뿐이었던 불안한 고희를 어린 로트렉은 잘 배려했다. 이상적인 인간상과 그것의 표현에 노력했던 고희의 순수한 영혼을 그는 간파했던 것이다.

코르몽의 아틀리에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몽마르트 언덕을 의지하며 걸었던 그들의 짧고 끈끈한 우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 파리의 대기마저 고희를 외면했을 때, 고희가 좌절하고 분노했을 때 그가 홀연히 찾은 아틀르. 그것은 로트렉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하얗게 눈이 내린 아틀르, 찬란한 하늘. 아틀르는 고희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자신과 같은 무리들과 서로 교제하며 안주할 수 있는 것을 커다란 낙으로”(파스칼, <광세>) 삼았던 둘만의 우정이 새삼스럽다.

고흐를 그린 그림에서도 친밀도가 강하게 표출된다. 옆모습만으로 세탁부의 내면을 탁월하게 포착했던 그는 이번엔 정면을 응시하는 고희의 프로필을 통해 그의 내면을 잘 담았다. 고희가 이렇게 빛난 적도 있었다. 화사한 파스텔은 빛이 그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가 광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손을 단단히 맞잡고 오른쪽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고희의 모습에서 구도자적인 진지함마저 엿보인다. 가난한 농부와 광부의 슬픈 삶을 애정 어린 눈으로 기록하여 보리나주의 성자로 치장된 바 있는 고희의 진



빈센트 반 고희 1887, 파스텔화, 54×45cm, 암스테르담, 빈센트 반 고희 미술관

면목을 엿보는 듯 하다.

대조적 성격과 나이 차이 그림을 그릴 당시 고희는 34세, 로트렉은 23세로 알려져 있다)에도 불구하고 고희를 참다운 예술가이자 인간으로 존중한 화가 로트렉. 가난했던 고희의 화대까지 마련해 함께 사창가를 출입할 정도였다. 벨기에의 화가 그루가 고희를 비방했을 때, 고희의 명예를 위해 불편한 몸으로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던 그였다. 절뚝이며 노기를 표출했을 그의 모습이 연상돼 숙연해지기 까지 한다. 그래서 속필의 파스텔은 화사하고 발랄하게 고희에 대한 로트렉의 진한 우정과 사랑을 담는데 적절해 보인다.

이처럼 로트렉은 몽마르트의 몰랭루즈를 중심으로 예술혼을 불태웠다. 몰랭루즈의 무희들과 사창가의 매춘부들은 인간적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그를 따뜻하게 수용했다. 어쩌면 그녀들은 그의 육체적 불구와 자신들의 불행을 등치시키며 위로했을지도 모른다. 로트렉이 그녀들의 애환과 절망 그리고 희망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감정의 교류에 의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의 육체적 장애가 훌륭한 작품을 남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고평한다면 잔인할까. 아니 자신의 불리한 환경을 훌륭하게 극복했다고 평해야 할까.

어두운 삶의 단면과 연인을 그려낸 작품

그의 후천적 불구는 상대적으로 허약한 다리에

있었다. 14세에 마루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것은 앞으로 탁월 고통의 신호탄이었다. 바로 그 이듬해 어머니와 산책하던 도중 도랑에 빠져 오른쪽 다리의 대퇴골이 부러졌으니까. 이 끔찍한 사고 후에 그의 상체는 정상적으로 발육을 계속했으나 하체는 발육이 정지되는 불행을 안고 살아야 했다. 유약한 신체는 근친상간에 의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과론이다. 아무튼 추락 사고는 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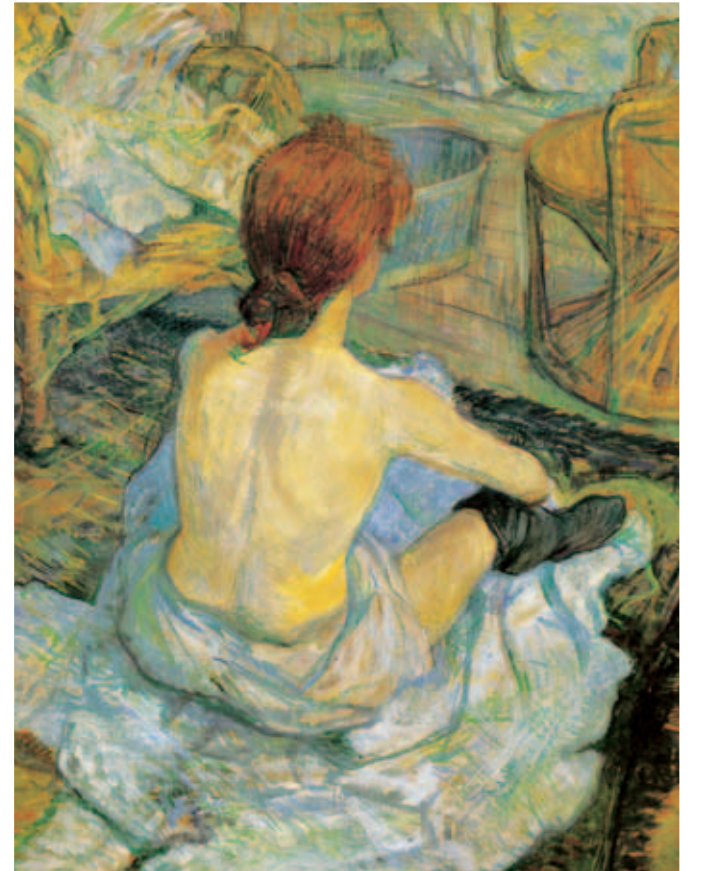
불행한 사고 이후 그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동물화가 르네 프랭스토에게 사사했다. 이후 보나의 아틀리에를 거쳐 다시 코르몽의 아틀리에에서 그림 수업을 받았다. 이때 고희, 에밀 베르나르 등과 교류하며 화가 로트렉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몽마르트에 상주하며 매음부들의 애환과 슬픔에 눈 뜨기 시작했다.

위선을 벗어던진 그녀들의 순수한 모습에서 진한 연민과 애정이 솟아났다. 그녀들 역시 로트렉의 진심을 이해했고 로트렉의 그림을 위해 기꺼이 비루한 삶의 단면을 공개했다. 그는 그녀들을 위해 편지를 대필했고 럼과 브랜디를 비롯한 술과 식사를 제공했으며 그들의 신세타령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의 그림 속 그녀들이 드가나루오 등의 그림처럼 대상화되지 않고 진정한 인간으로 표현됐던 것은 이 때문이다. 몰랭루즈의 무희들 잔 아브릴, 라 굴뤼 등도 그의 그림에서 저급한 댄서가 아니라 고뇌하고 사랑하는, 품격있는 인물로 진정한 모습을 찾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창가에서 가장 평안했다는 로트렉은 매음부들과의 성적 쾌락에 탐닉했고 설 새 없이 그녀들을 그렸다. 특히 그는 대상을 미화하지 않고 리얼하게 포착하므로 아름다운 여성의 누드와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대상을 재빨리 포착하여 마치 스냅사진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는 그가 포스터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몽마르트를 떠나 다른 술집을 전전해도 소외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 그리고 그들을 재빨리 포착하는 것은 여전했다. 그러나 지나친 폭음과 성적 탐닉은 그의 육체를 야금야금 갉았다. 아니 그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 불구자로서의 자포자기적 삶을 마감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자학적 폭음을 설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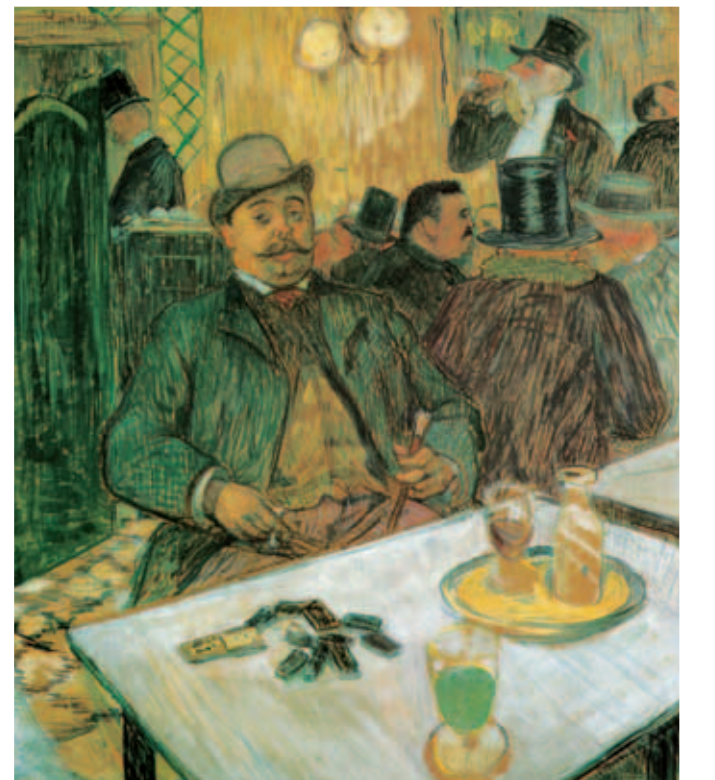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트렉은 1899년 2월 몽마르트의 사창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요양소와 파리를 전전했다. 그러나 끝내 알코올 중독과 정신이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1901년 9월 9일 새벽, 친구와 죽음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다가 정말 그답게 침대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나이 37세였다. 우연일까 고희도 그 나이에 생을 하직했으니.

훗날 파리에 입성한 청년 피카소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파리에 와서야 로트렉이 얼마나 위대한 화가였는지 알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화장시킨 로트렉의 유해는 베르들레 묘지로 이장됐다. 그의 어머니는 아틀리에에 남아있던 작품의 전부를 알비시 미술관에 기증했고 현재 이 미술관은 ‘톨루즈- 로트렉 박물관’으로 불린다. 비로소 그의 회화적 개성이 이름을 얻게 된 셈이다. ☎



화장하는 여인 1889, 유화, 67×54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로트렉은 몽마르트의 몰랭루즈를 중심으로 예술혼을 불태웠다. 몰랭루즈의 무희들과 사창가의 매춘부들은 인간적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그를 따뜻하게 수용했다. 어쩌면 그녀들은 그의 육체적 불구와 자신들의 불행을 등치시키며 위로했을지도 모른다.



카미에 보알로 씨 1893, 유화, 80×65cm, 클리브랜드 미술관

명사의 책 읽기

불멸의 아티스트 17명의 초상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

글 _ 김갑수 시인, 문화평론가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
박명욱 지음 | 그린비 펴냄

요절을 소년기적 환상과 낭만으로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18세에 씌어진 랭보의 시, 불에 타 죽은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난해한 소설이나 실비아 플라스의 작품이 그런 관심 속에 읽혀졌다. 좋은 글쓰기를 꿈꾸기보다 그 죽음에 먼저 경도되는 것은 건 강하지 못한 태도일 터. '멋스러움'에 대한 철없는 오해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치기가 전 부였겠는가.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던 그 신당동의 중학생, 효자동의 고교생 눈에 이 세상은 탐욕과 통속의 얼룩처럼 비쳐졌던 것. 백조의 마지막 노래처럼, 몽크의 절규처럼 이 속악한 세상에 대고 강렬한 한 마디를 남기고 일찍 떠나는 것이 근사한 삶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물론 그 후로 지금까지 별다른 '한 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탐욕스럽고 통속하게 오래오래 살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수치스럽거나 괴롭기까지 한 것은 아니되 간혹 등허리로 늦가을 찬바람이 몰아치고는 한다. 이렇게 살려고 한평생이었나, 하는 아련함의 송곳이 콧속 찢러오기 시작하던 사십 초반의 나이, 그때 어떤 책을 접하게 되었다. 어쩌면 평범한 기획일 수 있는 인물평전 모음인데, 무엇보다 저자의 필력이 뛰어났고 동원된 인물들이 강렬했다. 그 책은 다른 말로 하자면 '억울한 천재들의 생애'를 묶어놓은 책이었다.

제목이 좀 웃겨서 눈이 먼저 갔다. '너무~ 너무~'라니. 정확히 보니 '너무 낡은 세상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였는데 이 말은 프랑스의 근대 작곡가 에릭 사티의 일

기에서 따온 거였다. 앞서의 '너무'는 늙은 유럽을 뜻하는 것이었고 뒤의 '너무'는 스스로 천재라고 확신한 사티 자신이었다.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고 사티는 일기에 자신을 '별레'라고 자학적으로 쓰는 한편 파리 사교계에서는 1인 종교의 교주를 자처하며 괴상한 신흥종교를 창시하는 기염을 토했다. 스스로 상아탑이라고 이름 지은 파리 변두리의 하숙집에는 27년 동안 단 한사람도 들어지 않는 고립을 택했고, 사후 그의 집을 찾아본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천정에 거미줄이 즐비한 황폐와 가난의 밀실이었다고 한다. 사티와 같은 그런 삶, 그런 평판, 그런 좌절의 생애를 살아간 예술가들의 흔적을 추적한 책이니 왜 아니 강렬했겠는가. 다소 분량이 길더라도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새겨 본다. 그것은 이름이라고 보다 흡사 상징의 울림을 듬뿍 담은 시어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첫 인물은 잔혹하고 끔찍한 영화들로 유명한 감독 파올리니, 통념을 훌쩍 뛰어넘는 건축물을 남긴 안토니오 가우디, 실비아 플라스와 에릭 사티, 사진가 스타글리츠, '인간실격'의 다자이 오사무, 착한 여자 캐테 콜비츠, 블레즈 상드라르, 콘스탄틴 브랑쿠시, 가르시아 로르카, 다이안 아버스, 모리스 윌트릴로, 구스타프 클림트, 바슬라프 니진스키, 그리고 페리디낭 셀린과 로버트 카파, 히에로나무스 보슈로 끝맺는다.

불운한 천재들의 명단이다. 당연히 낯선 존재들이어야겠지만 이 중에는 어언 듯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름도 꽤 많다. 만일 당신이 이들 중 한 절반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상당한 문화적 식견이 있다고 자부해도 좋다. 하지만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생애까지 어렵잡을 수 있다면, 식견이고 자부고 뭐고 어떤 섬뜩함과 부끄러움에 몸이 움츠러들지도 모른다. 숨 막히는 고통의 시간들로 그 생애가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요절의 신비를 꿈꾼다거나 자신의 무명과 불운을 탓하는 것이 좀 주제넘은 망상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까지.

천재의 생애에서 그 성과물만을 탐하는 것이 어린시절의 자유였다. 나이 먹으면 그 성과물의 밑그림이 된 생애의 숨 막힘을 알게 된다. 겸손하지, 아니 저으기 비굴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까마득한 후배시인 기형도의 요절에 대한 헌사로 문학평론가 김현의 이런 문장이 나온 것이다.

“살아있으라, 다만 살아있으라!”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김갑수는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84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세월의 거지〉, 음악에세이집 〈삶이 괴로워서 음악을 듣는다〉를 냈다. SBS 러브FM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의 진행자로서 책과 방송의 본격적인 만남을 추구해 왔고, 그 후 KBS 1라디오 '김갑수의 문화읽기'를 거쳐 현재 KBS2라디오 '라디오 독서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간행물 윤리위원회 예술부문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전 인류의 공공의 적인 노화, 도대체 그것은 왜 일어날까? 학계에서는 예정설과 환경설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정설은 유전정보에 이미 수록된 프로그램대로 반드시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반면 환경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노화촉진 요소에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접촉하느냐에 따라 노화의 양상과 진행속도도 크게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환경설에 다소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명쾌하게 노화의 비밀을 풀지는 못한다. 대신, 인류의 오랜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노화 예방, 장수 비결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습관과 수면이다.

아침은 충분히,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적게 **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먹는 습관은 노화 방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서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시계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노화를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소식의 이로운 효과를 강조해 하루 두 끼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영양 부족을 가져올 수 있고 열량이 부족하여 활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 아무래도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노화를 막고 젊을 지켜주는 식사 원칙은 '아침은 충분히,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적게'다. 오전에는 신체 활동이 가장 활발하므로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아침식사를 든든히 해야 한다. 늦잠을 자고 출근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은 아침을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기 쉽다. 그러다 보니 일찍 허기가 저 점심때는 과식을 하기가 일쑤인데 과식 자체도 나쁘지만 사 먹는 음식에 많이 든 조미료, 소금, 설탕이 모두 노화를 촉진하는 성분들이라는 점도 좋지 않다.

저녁과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축적하려는 경향을 띠므로 늦은 시간에 먹는 음식은 대부분 체내에 저장된다. 따라서 저녁은 적게 먹는 게 이롭다.

아침 전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시는 물도 큰 도움이 된다. 생수를 잔에 따라 잠들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약 20~25% 정도의 물분자가 육각형 형태의 육각수로 변한다. 우리 몸의 물분자의 약 60%가 육각수 덕분에 보통 물보다 흡수가 잘 되어 노폐물 제거와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다. 물은 적어도 하루에 1.5L 정도는 마셔야 하며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잘 자는 것도 기술 ** 수면은 노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제

노화를 막는 '생활의 발견'

동안선발대회, 동안클럽, 최춘클럽...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닌 '동안(童顏)'이 뜨

는 시대다. 요즘 최고의 찬사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는 말. 그래서인지 요즘 호적나이로 자신의 나이를 계산하면 바보로 불리기 쉽다.

진짜 나이는 몸 나이, 즉 생체 나이라는 것.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반증하는 세대다. 고령화시대의 최대의 관건은 젊게 사는 것,

즉 노화예방이기 때문이다.

글_ 이인철 주부생활 기자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노화가 촉진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노화에 도움이 되는 숙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생체시계에 따르는 것이다.


깊은 잠을 자려면 먼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시계가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이 생체시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노화를 막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어쩌다 조금 늦게 잤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도록 한다. 생체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가장 좋은 것은 9~10시에 잠이 들어 5~6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 즉, 해가 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다.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는 빛에 의해 조절되는데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부터 분비되기 시작하여 수면을 유발하고 해가 뜨는 새벽녘에 감소한다.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건강한 수면 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찍 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화방지호르몬인 성장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이때 깊이 자야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침실을 잠자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시끄럽거나 너무 밝거나 너무 춥거나 더워도 깊은 잠을 자기 힘들다. 침실에는 할 수 있으면 방음 장치를 하여 소음을 방지하고 전화기와 시계를 치우며, 두껍고 진한색의 커튼으로 빛을 가리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침대는 넓을수록 베개는 낮을수록 좋다. 예민한 사람한테는 옆 사람의 방해 받을 수 있는 더블침대보다는 트윈 침대가 좋을 수도 있다. 잠자는 자세는 본인이 편안한 자세면 어떤 자세도 좋다. 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 술은 쉽게 잠이 들게 도와주는 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자주 깨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하며 꿈을 꾸는 수면을 감소시킨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몸이 흥분하면 잠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운동을 끝내는 것이 좋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것 같으면 비스킷이나 도넛처럼 가벼운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다.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유에는 잠과 관련 있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다.

10년은 젊게 보이고 싶은 당신이라면, 오늘부터 먹고 자는 문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해보자. 매일 매일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Tip_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습관

- * 당근이나 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를 즐겨 먹는다.
- *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천연식품을 먹는다.
- * 육류는 되도록 적게 먹는다.
- * 생선을 많이 먹되 뼈까지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이 더 좋다.
- * 콩으로 만든 식품을 많이 먹는다.
- * 설탕과 염분의 섭취를 가급적 줄인다.
- * 기름은 식물성 기름으로 먹는다.
- * 깨를 많이 먹는다.
- *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 * 저 칼로리 섭취를 원칙으로 한다.

건강을 배달하는 행복 전령사 물류팀

원칙이 무너지면 그 근간을 이루는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와 확인 작업을 거듭한 끝에 물 샬 틈 없는 든든한 물류 기지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삼천당제약의 최전방 공격수 물류팀 팀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고객에게 건강을 배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뜨거운 피약별도 아랑곳 않고 일하는 그들의 땀냄새 물씬 풍기는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글_이용규 자유기고가·사진_CSD



이상범 부장



백도현 사원



김태호 사원



한효정 사원

물류팀은 원칙에 살고 원칙에 죽는다. 구렁이 담 넘 어가듯 어물쩍 설렁설렁 넘어가는 일이 이곳에서는 결단코 용납되지 않는다. 물량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날 하루는 밤샘 작업도 불사해야 한다. 이들이 그토록 엄하게 작업을 하는 까닭은 삼천당제약의 이름을 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바로 물류팀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 몸속의 혈관'처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물류 작업.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춰버릴 정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오늘날 기업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한 것이 물류 작업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 물류 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물류팀의 이상범 부장은 팀원들에게 늘 완벽과 원칙을 강조한다. 몇 번에 걸친 정확하고도 신속한 확인 작업이야말로 경쟁 체제에 돌입한 물류팀의 생존 전략임을 잘 아는 까닭이다.

"물류팀은 육상 릴레이 경기로 치자면 마지막 주자와도 같습니다. 최종 주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뛰어진 선수들이 넘긴 바통을 들고 결승점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해야 하는 것이 최종 주자가 할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삼천당제약이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의약품들을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해야 하는 곳이 바로 저희 물류팀입니다. 적당적당 일해서 마지막 주자의 몫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27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삼천당제약의 물류팀을 지키고 있는 그는 부하직원들에게 엄한 상사이자, 끈끈한 정과 신의를 중시하는 화끈한 보스이기도 하다. 지천명의 나이임에도 군살 하나 없이 다부진 체격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알고 보니 자타가 공인하는 열혈 운동 마니아. 프로 선수 못지않은 보디빌더 경력에, 대한민국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산이 없을 정도로 등산을 즐기는 산악인이기도 하다. 거기다 청년 시절부터 취미로 시작했다는 사진 촬영의 내공도 만만치 않다. 단순한 취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 보였는데, 이상범 부장은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더 열심히 몰두하게 된 것

같다며 웃는다.

처음 입사해 많이 부족해 보이고 어린애 같아 보이던 부하직원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어엿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간혹 직원들이 비전이 없다는 불평을 하며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따끔한 충고의 말을 잊지 않는다.

"전문화된 인력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물류입니다. 절대 만만히 볼 작업이 아니에요. 비전 없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전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젊은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실한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물류팀 부하직원들이 더없이 고맙고 기특하다고, 생산부에서 2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쌓은 든든한 최원학 차장과 명재학 과장, '보배'라고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행정 전산 업무를 톡 소리 나게 맡고 있는 10년 베테랑 조민혜 사원, 완제품 보관관리를 담당하는 분위기맨 백도현 사원, 입고·출고·포장·출하시 수량 착오 없도록 검수하느라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정낙영·김태호·고수용 사원, 이것저것 보고 배우느라 정신없는 햇병아리지만 새내기답게 매사에 열심인 막내 한효정 사원에 이르기까지 무더운 날씨에 비지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소중한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물류팀을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된 것일 게다.

먼 옛날,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길고 험한 실크로드를 따라 교역을 시작하면서 상권을 장악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는 빠르고 안전한 물류의 이동이 기업 이윤의 가장 큰 승부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땀방울을 흘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물류팀의 힘찬 손끝 하나하나에서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삼천당제약의 열의와 노력이 담겨져 있음을 느낀다. 실 새 없이 약품을 실은 박스가 들락날락 하는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도 즐겁게 사진 촬영에 응해 준 물류팀원들 덕분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던 하루였다. 📷



최원학 차장



명재학 과장



고수용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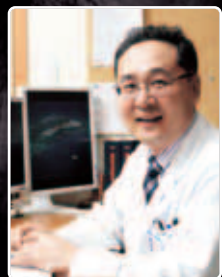
정낙영 사원



조민혜 사원



수술 없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보툴리눔 독신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 개선 방법이 소개되면서 보톡스는 성형 방법 중 히트상품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술법이 되었다. 시술이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적용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톡스를 이용한 시술법은 점차 증가할 추세이다.

글 정찬민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과장



보톡스 시술 시간은 약 5~10분 사이로 매우 짧으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19세기 초 독일에서 식중독으로 한번에 2백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독일 의사 유스티누스 케르너는 이 식중독의 원인이 잘못 보관된 소시지나 통조림에서 유래하는 '보툴리눔'이라는 독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이 질병을 '보툴리즘'으로 이름 지었는데 라틴어로 소시지를 말한다. 당시 그는 이 독이 근육 수축을 마비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예견했다. 하지만 보툴리눔 독신이 질병 치료에 이용되기까지는 100년 가까이 걸렸다. 1980년대 들어 보툴리눔은 본격적으로 안검경련, 근육성 사경(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질병), 소아마비 환자의 강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오늘날 보툴리눔 독신은 얼굴의 주름살을 펴주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다. 보툴리눔 독신이란 햄, 소시지, 꿀, 통조림 등 밀폐된 곳의 오래 저장된 음식물에서 발견되는 병원균이 분비하는 여러 독소 중 하나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독소를 말한다. 이것은 운동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곳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근육을 마비시키는 신경 독소로, 근육 수축을 억제하고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도 안면주름치로나 사각턱, 종아리 알통을 교정하는 데 사용된다.

처음에는 눈꺼풀의 경련이나 사시, 소아마비 환자의 근력 조절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안과 등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외과, 신경과, 치과를 비롯하여 다한증, 주름살 제거, 사각턱 교정, 종아리축소 등을 위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등 이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보툴리눔 독신의 작용원리와 시술방법 ** 모든 근육은 움직일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근육에 전달되어 움직인다. 그런데 이때 보툴리눔 독신을 만나게 되면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억제된다. 이런 원리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안면부 주름의 경우, 주름은 안면부에 존재하는 표정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표정근을 마비시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

정찬민 ● 1986년 경희의대 졸업 ● 1999년 Plastic surgery center of pacific 연수 ● 1999년 정찬민의 아름다운 성형외과 원장
● 2003년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과장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IRPAS정회원
●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화상학회 정회원 ● 대한수부외과학회 정회원 ● 미국성형외과학회 정회원

각턱 교정 또는 종아리 축소 치료의 경우, 보툴리눔 독소에 의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며 이로 인해 근육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툴리눔 독신의 시술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보툴리눔 독신을 이마나 미간, 눈꼬리 주름 또는 사각턱의 원인이 되는 해당 근육에 주사하는 것으로 시술이 끝나며 정도에 따라 적당한 양을 주사하게 된다.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0분 정도로 매우 짧다. 일반적인 주름은 주사 후 2~3일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약 3~6개월 정도 지속된다. 사각턱 교정이나 종아리 축소의 경우에는 보툴리눔 독신을 주사하고 2~3주 정도 경과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개의 경우 1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

시술 전에 특별히 준비해야 할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나 다만 세안을 12시간 정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사 후 마사지를 하거나 문지르게 되면 보툴리눔 독신이 주변 근육으로 이동하여 부

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지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시술을 받은 후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영, 목욕, 화장 등도 가능하다. 또한 시술을 받은 표시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신의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 재시술을 받아야 된다. 재시술 시기는 사람에 따라, 근육의 강도에 따라, 근육과 약물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지속되는 기간이 다르지만 통상 첫 번째 시술 후 재시술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보툴리눔 독신의 적용범위와 부작용 ** 보툴리눔 독신의 적용 범위는 증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적용 범위로 는 안검경련, 뇌성마비 근육조절, 강직성 발음장애, 다한

증, 표정주름 제거, 사각턱 교정, 종아리 축소 등이 있다. 표정주름 제거의 경우 얼굴에 주름을 만드는 표정근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펴는 원리이다. 이마, 미간, 눈가, 입가 등의 주름에 이용되며 효과는 시술 후 1~2주에 최고에 달하며 약 3~6개월 간 지속된다. 특히 이마주름, 미간의 내천자 주름, 눈꼬리 주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음식을 씹는 저작근이 과도하게 발달하여 아래턱 부위가 두툼하게 보이는 경우 저작근에 보툴리눔 독신을 주사하면 근육두께를 위축시켜 아래턱 부위를 가름하게 만들 수 있다. 시술 방법은 근육의 강도, 약물의 반응 정도, 근육의 사용 정도에 따라 달리 한다. 하지만 턱뼈 자체가 튀어나와 생긴 사각턱의 경우 뼈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사각턱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시술 전에 검사를 통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시술 받는 것이 좋다.

보툴리눔 독신은 1989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이후 안과에서 사시치료제로 사용된 이래 안면경련, 근육강직 등 신경근 질환 및 주름제거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보툴리눔 독신이 독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몸무게 70kg의 성인의 경우 약 30명 정도가 치사량으로 알려져 있고 약간의 증상이라도 느끼고 싶다면 한꺼번에 5명 이상은 맞아야 한다.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양은 매우 적은 양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치 않는 부위에 주사를 하면 해당 근육에 마비가 올 수 있다. 물론 가역적인 현상이라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오기는 하지만 정확히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만큼의 주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의로부터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할 경우 주입이 잘못되면 일시적으로 눈꺼풀이 두꺼워지거나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경우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기 힘들 수도 있다. ㉔



보툴리눔 독신의 시술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보툴리눔 독신을 이마나 미간, 눈꼬리 주름 또는 사각턱의 원인이 되는 해당 근육에 주사하는 것으로 시술이 끝나며 정도에 따라 적당한 양을 주사하게 된다.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0분 정도로 매우 짧다. 일반적인 주름은 주사 후 2~3일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약 3~6개월 정도 지속된다.



삼천당제약(주) 제8기 공채사원 입사

삼천당제약(주)은 최근 전역장교 중심으로 새로운 인재를 선발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삼천당제약(주)에 입사한 인재는 7월 한 달 동안 의학기초교육, 약물교육, 제품교육 등을 이수하고, 8월에 필드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서울 및 지점(지방) 등 현업에 배치되어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온 만큼 능력과 의욕이 단연 돋보이는 이번 제8기 공채사원들은 앞으로 삼천당제약(주)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소염제 '롤캠 정' 출시

'롤캠정'의 주성분인 Lornoxicam은 다양한 동물모델과 짧은 반감기의 임상실험에 있어서 진통과 항염증효과를 나타내는 oxicam계열의 NSAID치료제로 화학적으로는 Tenoxicam에 Chlor기가 치환되어 potency가 10배 높아지고 약물동력학적 성질도 변화하여 Tenoxicam의 반감기가 72시간인데 비해 Lornoxicam의 반감기는 4배로 짧아졌다. 회사측에 따르면 '롤캠정'은 진통 및 항염증 효과 외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관절파괴를 저해하는 효과적인 제품으로 특히, 반감기가 짧고 내성이 우수하여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안구의 혈액순환 개선제 '트레아틴 점안액' 출시

Troxeutin은 식물에서 유래된 반합성 flavonoid로서 혈전용해, 혈관 안정화작용, 항산화작용을 통해 당뇨병성 망막증 또는 결막, 망막 및 유리체 출혈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트레아틴점안액'은 안구에 출혈이 있는 환자에서 혈관투과성을 억제하고 삼출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며,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반응을 억제하여 안구의 영구적인 혼탁을 방지한다.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지펜틴 캡슐' 출시

지펜틴캡슐은 신경전달물질인 GABA(gamma-aminobutyric acid)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가바펜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항전간체로서, 전간환자의 부분발작의 보조요법과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경병증성 통증의 증상을 신속하게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병증성 통증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불안 및 불면 등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준다.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plasma protein binding을 하지 않아 약물상호작용이 적어 병용투여가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